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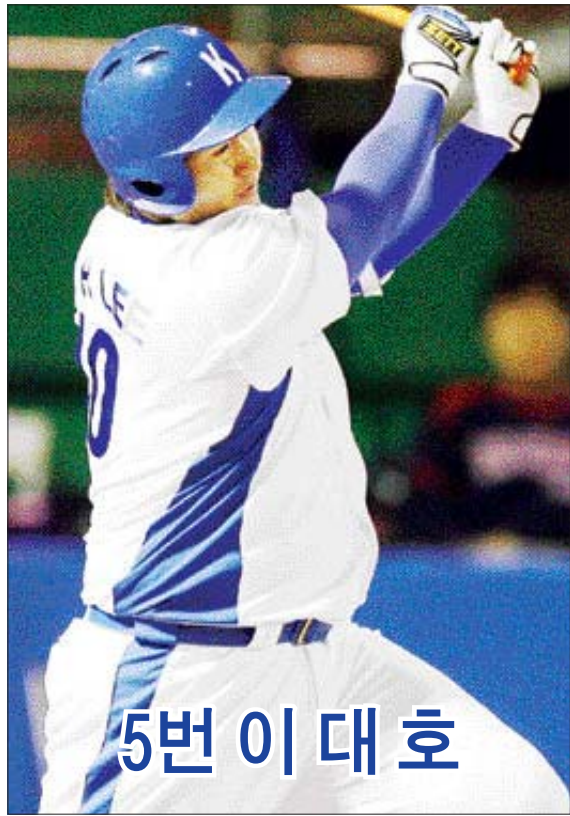
■ 베이징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 한국팀 클린업트리오 윤곽



3번 이승엽



4번 김동주



5번 이대호

상대 투수 누구든지... '거포 3총사' 포진

3월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 최종 예선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야구대표팀 중심타선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베이징행 티켓을 위해 전지훈련중인 야구대표팀은 지난 24일 저녁 단국대와 첫 연습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에서 대표팀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후 2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을 필두로 김동주(32·두산), 이대호(26·롯데)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는 내세웠다.

1루수 겸 3번 타자로 나선 이승엽은 7회 말 솔로 홈런을 터트리며 부상회복을 알렸고, 3루수와 지명타자로 나선 김동주와 이대호도 안타를 하나씩 기록하며 몸을 풀었다. 이대호는 25일 경기에서 3점포를 쏘아 올렸다.

24일 14-1로 대승을 거둔 김경문 야구대표팀감독은 "앞으로 큰 변화없이 이대로 중심타선을 가져 가겠다"며 중심타선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이승엽은 3번을 그동안 많이 했다. 하지만 김

김경문 감독 "좌·우타 신경 안써"

동주는 3번을 해보지 않았다. 김동주와 이대호는 지난해에 너무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잘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문 감독은 좌타자인 이승엽을 4번 타자로 활용해 우-좌-우로 가는 클린업 트리오는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른손, 왼손을 너무 따지고 상대 투수들을 신경 쓰면 팀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지그재그" 타선을 짜지 않았다.

그만큼 장타력과 정교함을 겸비한 세 타자에 대한 믿음이 두텁고 전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통큰 야구'를 펼치겠다는 얘기다.

지명타자로 예고했던 이승엽에게 1루를 맡긴 것에 대해서는 "당초 이대호를 1루수로 기용하려고 했으나 코치진과 상의한 결과 이승엽이 수비하는 모습이 좋을 것이라

는 의견이 나왔다. 가능하면 1루에 계속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1루 수비에 예약이 강한 이승엽을 배려하고 대표팀의 고참 타자로 공·수에서 후배들을 이끌어달라는 주문이 담겨있다.

김경문 감독은 당초 이승엽이 부담을 가지면 페이스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해결사'로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이승엽의 홈런이 없었더라면 한국이 잘하기 힘들었다. 결정적인 순간 한방을 해주면 김동주와 이대호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런포를 날린 이승엽도 경기 직후 "어렸을 때부터 3번을 많이 쳤기 때문에 4번보다 편하다"며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승엽-김동주-이대호가 새롭게 호흡을 맞춘 중심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해 지난해 12월 아시아예선전 때 부진을 만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ju.co.kr·연합뉴스

월드컵 축구 2차 예선 남·북대결때

평양에 태극기 게양될까?

오늘 오전 양측 실무협의

다음달 26일 평양에서 펼쳐질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 3차 예선 남북 맞대결을 앞두고 남북 양측이 실무접촉을 재개하기로 해 태극기 게양, 애국가 연주 등 복잡한 현안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오전 7시30분 우리측 대표단이 유로로 방북해 개성에서 오전 10시부터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1차 협의에서 남북 대표단은 응원단 방북과 기자단 동행 취재, 경기장과 훈련장 시설을 점검할 사전 조사단 파견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측은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국기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국가는 애국가 대신 아리랑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을 밝힌 상태.

축구협회는 북측이 끝까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FIFA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이번 2차 협의는 북측이 먼저 제의를 해온 점에 비해 입장 변화의 가능성이 엇보이고 있다.

북측은 1차 협의 이후 한동안 답이 없는 상태로 시간을 끌어들여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평가 협상을 할 만한 카드'를 정리한 게 아니었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월드컵 예선 경기는 상당한 액수의 중계권이 걸려있고 북측도 경제적 실리와 경기력 이점 등을 감안할 때 사사리 홈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 강경론만 고집하기는 힘들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평양 원정 경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점이다.

국기 게양, 국가 연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고 해도 대규모 응원단 방북과 취재진 동행이 두 번째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영표 소속 토트넘

잉글랜드 칼링컵 우승

이영표(31)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연장 혈투 끝에 강호 첼시를 꺾고 잉글랜드 축구 칼링컵 정상을 올렸다.

토트넘은 25일 오전 영국 런던 뉴웬블리

스타디움에서 끝난 2007~2008 칼링컵 결승 단판 승부에서 연장 전반 4분에 터진 수비수 조너선 우드게이트의 헤딩 결승골에 힘입어 첼시를 2-1로 제압했다.

토트넘은 1998~1999 시즌 리그컵 우승에 이어 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환희에 젖었다. 통산 네 번째 리그컵 우승.

그러나 이영표는 이날 결승전 라인업에 포함되지 못해 팀 우승에 힘을 보태지 못했다.

축구스타 베컴 오늘 한국 온다

세계축구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잉글랜드 미남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33·LA갤럭시·사진)이 6년 만에 국내 팬을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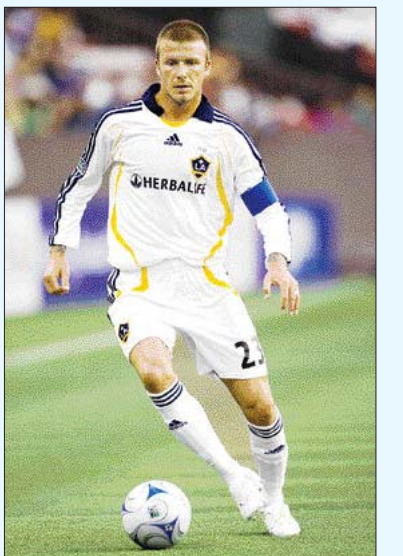
미국프로축구(MLS) LA 갤럭시와 K-리그 FC서울의 3·1월 매치에 출전하는 베컴은 26일 오후 4시40분 갤럭시 선수단의 일원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 직전 잉글랜드 대표팀이 서귀포에 훈련캠프를 치른 이후 첫 방한이다.

잉글랜드는 당시 히딩크호와 평가전을 치렀지만 부상 재발을 하고 있던 베컴은 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3월1일 오후 4시30분 마포구 상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질 FC서울과 친선경기에서 처음 국내 그라운드를 밟게 된다.

베컴은 27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상암 보조구장에서 진행될 공개 훈련에서 팬들과 만난다. 이어 29일에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위 아 스트롱 위드 베컴' 이벤트에 참석하고 스포츠인 아디다스 홍보 행사에서 서울 도심 명동에 출현할 예정이다.

LA 갤럭시의 코리아투어를 맡고 있는 세미스포츠마케팅은 베컴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LA 갤럭시 팀의 일원



로 온 것이라 특별 대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베컴은 5박6일 동안 국내에 머무르면서 팀 훈련을 함께 소화하고 생활도 팀원들과 동등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컴은 FC서울전에 최소한 50분 이상은 필 전망이다. 베컴은 전반기 선발 출전해 환상적인 명품 킥을 펼치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LA 갤럭시에는 베컴 외에도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진 미국 국가대표 랜던 도노번과 미국 A매치 최다(164회) 출전 기록을 가진 코비 존슨 등이 출전한다.

김병현 피츠버그 스프링캠프 합류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김병현(29·피츠버그 파이리츠)이 25일(한국시간) '해적선'에 본격 승선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구단 홈페이지와 AP 통신은 이날 김병현이 플로리다주 브래드던 메카니 필드에서 열린고 있는 스프링캠프에 합류했다고 소개했다.

1년간 기본 연봉 85만달러, 인센티브 100만달러 등 총 185만달러에 달하는 김병현의 계약도 이날 공식 발표했다. 옵션 중 30만달러는 게임 출장 수에 따라 받을 수 있어 115만달러까지는 쉽게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현은 나흘 전 피츠버그와 계약에 합의하고 신체검사까지 마쳤으나 개인 용무를

보느라 이날 비로소 팀에 합류했다. 피츠버그는 내야수 레이 올메도를 마이너리그로 보내고 당장 김병현을 40인 로스터에 포함했다.

1999년 데뷔해 지난해까지 394경기에서 54승60패, 86세이브, 평균자책점 4.42를 올린 김병현은 2005년 이후 3년 만에 볼펜으로 돌아왔다.

841이닝 동안 삼진 806개를 잡은 김병현은 선발로는 87경기에서 25승35패 평균자책점 5.07을 남겼고 구원으로는 307경기에서 29승25패, 평균자책점 3.58을 기록했다. 통산 피안타율 0.247을 기록 중인 그는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는 0.222에 불과해 강한 면모를 뽐냈다.

우즈 대회 3번째 우승

PGA 악센추어매치플레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천하무적임을 입증했다.

우즈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 갈러리골프장 남코스(파72·7천351야드)에서 36홀 매치플레이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악센추어 매치플레이판피언십 결승에서 스튜어트 싱크(미국)에게 7홀을 남기고 8홀을 앞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이 대회 세번째 우승을 따낸 우즈는 PGA 투어 통산 63승째를 올려 이 부문 공동 4위였던 아놀드 파머(62승)를 추월, 단독 4위로 올라섰다.

PGA 투어에서 우즈보다 더 많은 우승컵을 수집한 선수는 샘 스니드(82승), 잭 니클러스(73승), 벤 호건(64승) 등 3명 뿐이다. 우즈는 작년 8월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서 9개 대회에서 8승을 쓸어들고 준우승 한번을 차지하는 등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골프·컨도·호텔·관광·전문기업

룩펠리 회원권

골프장 시설/회원	골프장 시설/회원
관 주 3,500	총 실비 1,700
남관 주 4,400	골프 1,900
클럽900 6,400	도 로양 2,100

성원문의 (062)351-0095



24일 이란 이스파한에서 열린 아시아 핸드볼 챔피언십 준결승 '한국-이란' 경기에서 정이경이 공격하는 이란의 모하메드 레자 자피니아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쿠웨이트와 정상 다툼

이란 33-24 꺾고 결승 진출

아시아남자핸드볼선수권

한국 남자핸드볼대표팀이 쿠웨이트와 제13회 아시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정상을 다툰다.

김태훈(하나는행)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5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이란 이스파한에서 펼쳐진 대회 준결승에서 홈팀 이란

을 33-24, 9점 차로 대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조별리그 B조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연달아 꺾고 4연승으로 준결승 크로스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아시아핸드볼연맹(AHF) 회장국으로 편과 판정의 수혜자였던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3점 차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한국과 쿠웨이트는 26일 밤 10시30분 결승전을 치른다.

샤라포바 14연승... WTA 카타르 오픈 우승

올해 들어 성숙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마리아 샤라포바(세계랭킹 5위·러시아·사진)가 파죽의 14연승을 달리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카타르오픈(총상금 250만달러)을 제패했다.

샤라포바는 25일(한국시간) 오전 카타르 도하 칼리파 테니스 코트에서 끝난 결승에서 같은 나라의 베라 즈보나레바(27위)를 2-1(6-1 2-6 6-0)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개인 통산 18번째 단식 우승.

2005년에 이어 3년 만에 우승컵을 탐한 샤라포바는 올해에만 14연승을 내달리며 여자부 판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



에서 챔피언이 된 그녀는 국가대항전 페더레이션스컵 데뷔전에서 2승을 챙기는 등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승 상금 41만4천달러를 챙긴 샤라포바는 올해에만 벌써 155만9천76달러를 벌어들였다. 총상금은 1천180만달러.